

역사문제 공동인식이 신뢰구축 지름길

‘韓·日 상생을 위하여’ 특별좌담

- 우선 이번 총선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일본 중의원 의원 두 분과 한국측 라종일 대사가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복 60주년 및 국교정상화 40년동안 한일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라종일 대사= 1965년 수교 당시 양국간 연 1만 명이던 인적 교류가 이제 하루 1만명 이상의 왕래로 발전했다. 물적 교류면에서는 무역규모가 340배나 늘었다. 수교 당시와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다. 또한 수교 당시에는 정치, 경제 분야가 교류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문화,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양적, 질적 면에서 양국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누카가와 후쿠시마 의원=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 한국은 함께 협력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국가건설을 도모해 왔다. 일·미·한 3개국 동맹의 토대 위에 지역 및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파트너가 되어 왔다. 현재는 특히 ‘운영 공동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고 있다.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누카가와 의원

양국은 운명공동체 솔직한 의견교환을

- 일본 우익 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과거 식민시대 생각을 하는 일본인들도 있다는데.

▲하토야마 유키오 의원= 과거 식민지시대의 생각을 갖고 언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유감스럽다. 여기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출한 외교와 역사문제 및 과도한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일한 양국이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한 관계에 있어서 나의 조부이신 하토야마 이치로가 제정한 우애정신이 지금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본다. 우애정신은 자립과 공생으로 이뤄진다. 서로가 다른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귀중하다.

▲라 대사는= 일본은 10년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담화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식민지 피해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역사인식을 결여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약속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양국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 시도 등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돕고 이해하면 상호간에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올해는 광복 60주년이며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 사이에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역사 인식과 독도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광복절 60주년을 맞아 한·일 외교전문가들의 특별좌담회를 갖고 양국 현안 등을 점검하면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라종일 駐日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駐英대사



누카가와 자민당 의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방위청장관 ▲현 日·韓의원원명 간사장



하토야마 민주당 의원

▲도쿄대 공학부 ▲관방부 부대신 ▲前민주당 대표·간사장

호의 교류·이해가 깊어지는 것에 의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일한 의원연맹에서도 양국의 의원끼리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

- 재일 동포의 지위가 아직도 일본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데, 이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누카가와=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인과 같이 일본사회에서 모두 함께 생활하는 데에 부자유, 부적당함을 가능한 한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1991년 1월에 양국 외상이 서명한 각서에는 재일 한국인들의 법적 지위 및 대우의 향상에 관한 방침이 명기되어 있어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참정권의 문제는 자민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귀화 조건의 완화책이 제안되고 있다.

▲하토야마=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민주당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빠른 시기에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에 근거해 영주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현재 외국 국적의 경우 일본인과 결혼해도 주민등록표에는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야

■하토야마 의원

韓日, 민족주의의 보다 우애주의 앞세워야

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외국적 사람도 주민등록표 등재가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 화제를 동북아 정세로 옮긴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미국의 의회보고서에도 나왔듯 동북아 지역에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데.

▲라 대사는= 동북아 지역 각국들이 냉전시대가 때 물된 이후 민족주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근대 역사상 최초로 동북아 지역에 중국과 일본의 2대 강국이 병존하게 돼 향후 정세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간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큰 진전이 없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역사의 잘못을 철저히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같은 보편적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럽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하토야마= 나는 향후 50년 일본의 국가 목표를 미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지역집단 안보기구의 확립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가 위치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일한을 비롯해서 점점 긴밀히 연결해져 가는 아·태지역에 안정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21세기의 일한 관계의 원점도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

정리=정승욱 도쿄특파원

■라 대사는 日 우익 무절제한 발언 선린관계 악영향

▲누카가와= 유엔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 양국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단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개별의 문제에 대한 차원에서는 끈질긴 대화로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증대시켜 보다 큰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동의 인식 형성이 소중하다.

▲라 대사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의견차이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해 양국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부 사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시장경제, 민주주의 및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한 동질적 국가로서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한국의 이해와도 일치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이웃나라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세계의 지지를 얻을 리 없다. 이것은 ‘죄는 중요하되 사람을 중요하지 말라’라고 태연히 말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피해자의 기분을 거슬리는 역사인식이 주된 원인이다. 한국도 일본이 지금까지 이룩한 전후의 평화외교의 성과를 평가해 일본을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토야마= 한류 붐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인의 대한국 의식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불행하게 정치 쟁점화 돼버린 역사문제나 독도문제 등이 얽혀 있다.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 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건설적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하토야마= 한류 붐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인의 대한국 의식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불행하게 정치 쟁점화 돼버린 역사문제나 독도문제 등이 얽혀 있다.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 민주당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중요성에 비춰 이웃과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역사적 사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는 ‘국립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면 영토문제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역사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 대사는= 한일 양국간에 있어서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향후 조그만 계기가 있어도 양국관계가 폭발할 소지가 있다. 상호 불신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양국간의 역사 공동연구 등이 유용한 틀이 되리라 생각한다.

▲누카가와= 쌍방이 보다 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간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상

블러를 작아 제작한 고품격 고성능 퍼터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최소 1000회 CNC밀링 가공처리

최소 1000회 1/1000 밀링처리

니켈 합금 도금

- 동축형 CNC밀링 한 후 정밀 수직업을 거쳐 제작
- 페이스의 평면도의 오차가 1/1000로 정밀하게 제작
- 최고급 소재인 니켈 합금 소재로 제작
- 부드러운 타구감과 뛰어난 거리감을 실현
- 오리지널 레이콕 퍼터 샤프트 채용
- 일본 마츠스우사의 천연가죽 그립 사용

레이콕 니켈 퍼터 RN-04
RAYCOOK NICKEL PUTTER RN-04

레이콕코리아 TEL : (02)813-5063 FAX : (02)815-7844